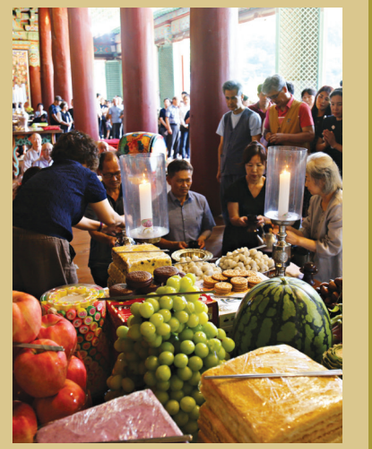
을사년 백중 49일 특별기도안내

불기 2569년 백중을 맞이하여 선망조상과 일체유주 무주 고혼영가 및 모든 인연 영가님들을 위한 백중 49일 특별기도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백중기도는 부처님의 십대제자중의 한분이신 목련존자께서 지극한 정성으로 49재를 올려 지옥에서 고통을 받던 어머니이신 청제 부인을 구제한 것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백중기도는 불보살님의 가피와 스님들의 원력으로 영가님들의 누겁에 쌓인 모든 업장을 소멸하고 삼악도의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을 성취케하고 나아가 일체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대서원의 기도입니다.
속리산 법주사에서 올리는 정성스러운 재와 백중49일간의 특별기도에 함께하시어 신도님과 신도님 주변의 모든 인연에게 자비가 충만하시고 무량복덕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49재 일정

입재 : **7**월 **20**일(음 6월 26일) 일요일	
초재 : **7**월 **26**일(음 윤6월 2일) 토요일	
2재 : **8**월 **2**일(음 윤6월 9일) 토요일	
3재 : **8**월 **9**일(음 윤6월 16일) 토요일	
4재 : **8**월 **16**일(음 윤6월 23일) 토요일	
5재 : **8**월 **23**일(음 7월 1일) 토요일	
6재 : **8**월 **30**일(음 7월 8일) 토요일	
회향 : **9**월 **6**일(음 7월 15일) 토요일	



- **동 참 금** : 영가 1위당 위패비 **2**만원 / 영가기도비 - **3**만원
  (49일간 영가님을 위해 연화백등을 밝혀드립니다)
  ※불보살님과 영가님을 위해 매 제사때 공양을 올리실 설판재자 시주받습니다.
- **접수안내** : 법주사 원주실 043)543-4755 / 010-6732-0133(문자접수)
- **동참계좌** : 농협 403020-51-010482 법주사

유네스코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法住會報
www.beopjusa.org
2025 | 7

정철지옥 釘鐵地獄



죄인의 몸에 쇠못을 박는 지옥을 정철지옥이라고 한다.
지옥 형벌의 하나로 죄인의 머리와 몸 모든 곳에 커다란 못을 박아서
죄인에게 참기 어려운 고통을 주는 지옥이다.
목에 커다란 나무칼을 찬 죄인과 못을 박을 때 고통으로
실신한 죄인이 왼쪽에 쓰러져 있다.
이때 지장보살이 지옥고를 치르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동자를 거느리고 나타난다.
악담과 독설로써 남을 괴롭히거나 몽둥이로써
남을 때린 자가 끌려가서 형벌을 받는다.

유네스코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法住會報

2025 7 | 통권 402호



2 **벽화이야기** 정철지옥
4 **이달의 법문** 이 여름, 정진의 길 위에서 법주사 조실 지명 대종사
7 **주지스님 법문** 법주사,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절이 되기를 정덕 스님
10 **수행여화** 여기가 무릉도원이다 현진 스님
12 **감로의 글** 법설의설경 – 연기법의 의설 – 여섯 번째 고광 스님
16 **걸망메고** 욕망은 길 욕심은 덫 무진 스님
18 **법주사 템플스테이**
19 **법주사 소식 / 법주사 행사일정**
20 **미륵재일기도 / 광명진언기도 / 지장재일기도 /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 / 초하루 신중기도 / 생일불공**
21 **법주사 대웅보전 삼존불 가사불사**
22 **승려복지 후원 안내**
23 **생전예수재 안내**
24 **을사년 백중49일 특별기도안내**

월간 법주회보 불기 2569(단기4358)년 7월호 통권 402호 / 1989년 9월 7일 등록 (등록번호 충북 라 01005) /제3종 우편물(나)급 인가 / 발행인 · 정덕 / 주간 · 현진 / 편집장 · 무진 / 전화 (043)543-3615 / 팩스 (043)543-3620 / 발행처 · 법주사

이 여름, 정진의 길 위에서

지명대종사 법주사 조실



속리산 깊은 산중에 초록이 짙어갑니다.
나뭇잎 하나에도 수천 겁을 넘긴 생명의 기운이 담겨 있고,
한낮의 매미 울음 속에도 생사윤회의 허망함을 깨우치는 법음이 흐릅니다.
어느덧 하안거가 중천에 이르렀고, 들녘에는 여름 볕이 맹렬하니,
이 몸 이 마음 또한 열기 속에 잠잠히 머물러야 할 때입니다.
더위가 시작되는 7월입니다. 여름의 한가운데로 접어드는 이때,
우리 불자님들께는 무엇보다 건강과 신행의 조화가 소중합니다. 기후가 예전 같지 않아,
계절마다 병들기 쉬운 몸을 돌보는 일이 신행과 다르지 않습니다.
몸을 돌보는 것이 곧 마음을 지키는 일이며,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
곧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는 길입니다. 자칫 마음이 흐트러지고 몸이 피곤하면,
정진하려는 뜻도 쉽게 시들어버리는 법입니다.
그러하니 여름철에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러나 유연한 생활을 통해 법의 실천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여는 이들이여,
이 계절의 뜨거움마저도 정진의 한 방편이라 여기시길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 예불을 미루지 않고, 법문을 놓치지 않고, 작은 인연에도 감사한 마음을 낸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 법을 삶 가운데 지켜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한 송이 연꽃은 더러운 진흙 가운데에서 피어납니다.
우리의 일상 또한 때로는 번다하고 때로는 무력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꾸준히 불법을
지켜나가는 자는 반드시 향기로운 과보를 얻으리라 믿습니다.
특히 법주사 대중 가운데 여름철 결제에 임한 수좌 스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봄바람이 골골이 머물던 산중이었건만,
어느새 숲은 짙은 녹음으로 들어찼고, 바람결조차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결제 정진에 임한 대중이 있기에 이 도량은 법의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도량 안팎에는 바위처럼 고요한 앉음이 있고, 새벽마다 목탁 소리에 맞춰
법의 길을 묻는 이들의 걸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행자입니다.
수행자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괴로움도 조용히 삼키고, 때로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한 점 빛을 향해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여름은 그 자체로 뜨거운 시련이기도 하거니와,
수행의 길 위에서는 육체의 피로와 마음의 동요가 동시에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러할수록,
스스로를 돌아보며 처음 화두를 들었을 때의 그 마음을 되새겨야 합니다.
화두는 가볍지 않습니다. 입으로만 붙들고 있으면 오히려 중생의 헛소리만 늘어날 뿐,

마음속에서 진실하게 타오를 때 비로소 그 의미가 드러납니다.
다행히도 우리 선가에는 무수한 조사들의 피와 땀이 스며 있습니다.
어떤 이는 바위 밑에서 몇 해를 앉았고, 어떤 이는 생명을 내던져 한 생각을 깨쳤습니다.
그들의 길은 지금 이 도량의 수좌 스님들께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름의 열기 또한 그 수행의 맥을 더욱 뜨겁게 하리라 믿습니다.
무릇 수행이란, 눈앞에 놓인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대하는
나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한 철을 잘 보내려 하지 말고, 한 찰나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찰나찰나에 성실히 임하는 자만이 비로소 세월을 이기고,
수행의 진실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화두는 스승도 대신 들지 못하고, 도반도 대신 풀지 못합니다.
오직 스스로의 목숨을 걸고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그리고 수좌 대중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복잡하고도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물질은 편리함을 더해가지만, 그만큼 마음은 헛헛해지고, 도리는 흐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할 일은 더욱 분명합니다.
중생은 중생의 자리에서, 수행자는 수행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는 일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잇는 가장 확실한 실천입니다.
더운 여름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바람 한 점에도 법이 담겨 있듯,
이 여름의 더위 또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속의 더위는 피할 수 없지만,
마음속 열기는 스스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한 생각을 돌이켜, 자비의 마음을 내고,
수행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무더위 속에서도 법의 청량함은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속리산 골짜기 깊은 곳에서, 오늘도 한 생각 들고 앉아있는 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진 또한 이 산의 기운과 더불어, 부처님의 가르침 아래 무르익기를 기원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께 귀의하며, 이 여름에도 불자님들과 수좌 대중의
건강과 정진이 두루 원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지스님 법문

법주사,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절이 되기를

정덕 스님 법주사 주지

혹여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소중한 지금'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함께 있음, 지금 들리는 목탁소리, 지금 피어나는 기도의 향기…
이 모든 순간은 다시는 오지 않을 귀한 법문입니다. 부처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며,
여러분의 발걸음 속에 함께 하십니다. 지금 내가 밟는 이 땅이 바로 정토요, 지금 내가 나누는 미소가 곧 보시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리산 자락 아래 자리한 도량,
법주사에서 인사 올립니다.
어느덧 한 해의 중간을 넘어
여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장마는 시작되었지만 들녘에는 푸르름이
가득하고, 잠깐씩 산사에 내리쬐는 태양은
뜨겁습니다. 자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계절을 넘기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언제나 같은 마음으로 법주사를 찾는
불자님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늘 같은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불자님들께
참된 기쁨과 쉼을 드릴 수 있을까."

스님이 되어 살아온 시간이
어느덧 사십 년 가까이 되었고, 법주사 주지 소임을
맡은 지도 몇 해가 흘렀습니다.
하루하루 도량을 돌보며, 법회를 준비하고,
불사 현장을 다니며, 도반 스님들과 대중의 뜻을
맞춰가면서 가장 깊이 되새기는 생각은
늘 같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삶에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리고 이 절에 오는 분들께
어떤 마음을 담아 안겨드릴 것인가. 제가 주지로서,
아니 불제자로서 늘 돌아보게 되는 화두입니다.
사찰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기도처이자, 누군가에게는 쉼터이며,
또 누군가에게는 눈물과 기쁨을 함께한 인생의
한 페이지입니다.
법주사에도 참 많은 인연들이 찾아오십니다.
법당 한 켠에 앉아 묵묵히 기도하시는 분,
부처님 앞에서 조용히 눈물 흘리시는 분,
아이 손잡고 오셔서 연등 하나 밝히며 소원을
비시는 분… 그 모습 하나하나가 이 도량을

살아 숨 쉬게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분들께
저는 한 가지 소망을 품습니다.
이 절이, 이 도량이, 이 신행공동체가
여러분 삶에 작은 행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은 때로 무겁고, 때로는 고요하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흔들리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줄을 잇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자비와 지혜,
그리고 평등의 가르침은 인생의 바다를 건너는
등불이 되어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딱딱한 교리로만
머물러선 안 됩니다. 가슴에 와 닿고,
일상에 스며드는 수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의 출발점은 '행복'입니다.
고해 속에서도 웃을 수 있고, 고통 속에서도
감사를 품을 수 있는 내면의 힘.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수행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불자님들께 '웃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말 그대로의 웃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회에 와서 마음이
환해지고, 신행활동을 통해 삶이 달라지고,
도반들과 함께하며 '참 잘 왔다'는
생각이 드는 도량. 그것이 제가 함께 만들어가고
싶은 법주사입니다.
이를 위해 법주사는 작은 것부터 차곡차곡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경내 곳곳을 정비하고,
여름철에는 시원한 그늘 쉼터를,
겨울에는 따뜻한 찻자리 공간을 마련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올 수 있도록 행사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중장년층과 어르신들을 위한 사찰탐방과
문화재해설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한가운데에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맞닿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 속의 불교'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는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일에 있어,
언제나 '함께 가는 길'을 꿈꿉니다.
주지 혼자 가는 법이 없고, 도량은 대중과 함께
이끌어가는 곳입니다. 종무소의 한 분 한 분,
대중 한 분 한 분, 포교사, 신도회, 연합회,
그리고 매일 법당을 닦고 꽃을 올리시는
보살님들까지, 이 도량은 수많은 손길과 마음이
모여 이룬 인연처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한 분 한 분이 이 절 안에서 '내가 필요하다'는
감각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어 법주사가 법주사답고,
이 수행공동체가 따뜻한 것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혹여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소중한 지금'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함께 있음, 지금 들리는 목탁소리,
지금 피어나는 기도의 향기…
이 모든 순간은 다시는 오지 않을 귀한 법문입니다.
부처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며,
여러분의 발걸음 속에 함께 하십니다.
지금 내가 밟는 이 땅이 바로 정토요,
지금 내가 나누는 미소가 곧 보시입니다.
이 여름, 법주사는 여러 불사와 행사를 통해



더욱 열린 도량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신행활동은 단순히 절에 나오는 일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실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의 소통을 더욱
활발히 하고자 합니다. 작은 의견도 소중히
듣겠습니다.
불편하신 점, 바라는 점, 함께 만들어가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것을 주지로서의 가장 소중한 '법문'으로
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글을 통해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우리에게 항상 희망을
남기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서로의 고통을 덜어주고, 웃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정진이며,
깨달음이며, 불국토의 실현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평안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웃으십시오.
그 웃음이 이 도량에 머물고,
다시 세상으로 번져가기를 간절히 발원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여기가 무릉도원이다

현진 스님 청주 마야사 주지

어제오늘 빗소리를 벗 삼아 소일하고 있다. 여름 장마의 시작을 알리는 것인지 세찬 비가 연일 내린다. 오전에는 비가 잦아진 틈을 타 정원에 나가 메리골드와 백일홍 모종을 심고 들어왔다. 어린 모종을 옮겨심기엔 이런 날이 가장 적당하다. 뜨거운 햇살이 없어서 잎이 시들거나 몸살 없이 뿌리를 잘 내리기 때문이다. 이번에 심은 모종들은 지난해 씨가 떨어져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것을 한 자리로 만들어 준 것이다. 비 오는 날이라도 정원에서는 할 일이 따로 있는 셈이다.

정원을 가꾸어보면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꽃이 피고 지기도 한다. 내가 심거나 들여온 일이 없는데도 어디서 씨가 날아왔는지 무리 지어 피는 꽃들이 있다. 대표적인 식물이 끈끈이대나물꽃이다. 우리 정원 식구로 데려온 기억도 없는 놈인데 몇 년 사이에 자연 발아되어 넓게 군락을 이루었다. 올해는 그 개체가 너무 많아 적절히 뽑아주면서 조절해주고 있다. 그러지 않으면 영역을 마구 확장하여 정원의 주인 노릇을 할 것 같아서이다.

요즘 '큰까치수염'이라는 야생화가 피는데 나도 초면이다. 내가 심은 적이 없어서 봄날에 풀을 맬 때 뽑아버릴까 하다가 그냥 두었더니 이제야 얼굴을 보여준 것이다. 그 이름을 몰라 궁금하던 차에 때마침 이웃 동네의 가드너가 방문하여 호적을 자세히 말해주었다. 이름과 사연을 알고 지켜보니 더 예쁘고 사랑스럽다. 이렇게 내 허락이나 동의 없이 자리 잡아 피고 지는 꽃이 더러 있다.

이런 사정이다 보니 꽃 이름이 워낙 다양하여 나도



우리 정원 식구들에게 명찰을 달아 주고 있다. 잘 아는 꽃인데도 불쑥 물어보면 입에 뱅글뱅글 맴돌기만 할 뿐 도통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구해온 휴케라도 영 외워지질 않는다. 아무래도 외래 표기보다는 우리 이름이 더 정겹고 부르기 쉽다. 바위취, 매발톱, 애기똥풀, 앵초, 은방울꽃, 깽깽이풀, 금낭화, 할미꽃 등. 그럼에도 나는 떡갈잎 수국은 여전히 입에 익어지지 않는다. 이러기에 화훼종류를 정확히 척척 맞추는 사람을 보면 무척 부럽다.

어제 이곳을 처음 찾아오신 분이 구절초를 보며 "이건 쑥갓이예요?"하고 물었다. 얼핏 보면 쑥과 비슷하니까 그런 질문을 했을 것이다. 유심히 관찰하지 않으면 작약과 모란이 헛갈리고 불두화와 백당화의 구분이 모호하다. 나는 아직도 데이지와 마가렛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한다. 한동안 비비추와 옥잠화의 구분이 어려워 실수한 적이 많았다. 이같이 잎이나 목질이 비슷하면 어렵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정원에 심고 가꾸면 백 번의 공부보다 낫다.

최근에 퇴직하고서 정원 일을 도와주는 분이 있는데 그가 제일 어려운 게 풀과 꽃을 구분하는 일이라 했다. 그래서 개망초, 명아주 등 높이 자라는 풀만 뽑으며 기본 일을 배우고 있다. 풀과 꽃을 제대로 알기까지는 시간과 경험이라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꽃 이름을 열 가지 이상 알지 못하면 '식물 맹盲'이라 부른다. 식물을 가까이 두고서도 그 얼굴과 이름을 외면하는 자는 지성인의 대열에 들 수 없다.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나는 얼마나 많은 이름을 외고 있는지 헤아려 보시길.

어제는 비를 맞으며 풀을 솎아 냈다. 누가 "내 몸이 고달파야 남에게 인정 받는다."는 말을 했다는데 딱 맞는 말이다. 비온다고 쉬고 무덥다고 쉬면 힘든 일은 언제 할 것인가. 그러기에 내 몸이 힘들더라도 날씨와 상관없이 부지런히 움직여야 단정한 정원을 유지할 수 있다. 내가 힘들여 손질해놓으면 방문하는 이들의 눈은 그만큼 즐거운 것이다.

이런 빗속에서도 능소화가 피어 반가운 인사를 건네고 있었다. 벌써 자신의 때를 알고 안부를 전하는 것이다. 내 곁에는 사시사철 꽃이 있어서 외롭거나 적적한 적 없다. 여기엔 사람보다 더 많은 '꽃동무'들이 도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동무들이 늘 나에게 말을 건네주고 인사하기에 쓸쓸하지 않은 것이다. 식물이 있는 곳은 어디든 즐거움이 따라온다.

다시 말해 꽃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별천지고 그 인생은 매번 '화양연화'다. 인생에서 매일매일 가장 빛나는 삶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정원을 만들고 가꾸면서 날마다 화양연화 아닌 때가 없었다. 매번의 계절이 가장 아름다운 날이었다. 그래서 며칠 전엔 우리 정원 한가운데 이정표를 세우고 그 팻말에 '엘도라도', '유토피아', '샹그릴라', '샴발라', '무릉도원' '극락정토' 등 인류가 추구하는 이상향의 세계를 적었다. 그것을 적은 뜻은 내가 사는 이곳이 멀리 가지 않아도 만날 수 있는 완벽한 불국토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다.

일찍이 토머스 제퍼슨은 채소밭과 정원이 있는 곳이라면 그 장소가 천국이라 했다. 물론 그곳에서 흙을 일구는 늙은 정원사일지라도 그의 삶은 행복으로 가득할 것이다. 식물과 더불어 사색하고 성찰하는 삶은 늘 생명에 대한 경이와 감사가 받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어떤 천국을 건설하고 있는지 궁금해진다.

법설의설경法說義說經

연기법緣起法의 의설義說 – 여섯 번째

고광 스님 법주사 노전

요즘 우리 주변에선 생각하지 못했던
대통령의 탄핵彈劾과 대선大選이라는
큰 소용돌이가 온 나라를 휘저어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구현되는 세계는 너무나 고요하고
적적하게 그 시끄러움을 적나라하게 구현해 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실 같은지 필자도 하마터면
깜빡 속을 뻔했습니다.
지난 호에서는 명색名色의 의설義說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법설의설경의
여섯 번째 의설 육입처六入處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문을 먼저 읽어보고 그 뜻을 헤아려 보겠습니다.
緣名色六入處者 云何爲六入處? 謂六內入處
眼入處 耳入處 鼻入處 舌入處 身入處 意入處.
명색을 연한 게 육입처六入處라는 자는
무엇이 육입처가 된다고 일러주는가?
육내입처六內入處를 이르면서, 안입처眼入處,
이입처耳入處, 비입처鼻入處, 설입처舌入處,
신입처身入處, 의입처意入處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육입처六入處를 '여섯 감각 장소'라고
번역하기에, 혹자는 '이게 왜 의설
(義說:잘못된 견해)이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알고 넘어가야 할 단어는
처(處:Āyatana)로, 이 처處라는 한자는
일반적으로 '장소, 때, 머물다.' 등의 뜻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불전佛典에서는 일반적인
외부의 장소는 '소所'로, 내 안에서 나와
세상을 구현하는 가상장소는 '처處'라고
구별하여 번역했습니다.
금강경金剛經의 첫머리에 '환지본처還至本處'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본래의 처소에 돌아와서'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도리어 근본인 12처處에
이르러야 하니'라고 해석해야 그 문맥이
딱 들어맞습니다. 왜냐하면 '지至'는 물리적인
장소에 도착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장소에
이르는 것을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인 장소에 도착하는 것은 '도到'자로
구분해서 번역하기에, 경전을 읽을 때 이런 점을
매우 주의해서 읽어야만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한자 조금 안다고
경전이 쉽게 해석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처處는 범어梵語의 아야타나(Āyatana)를
번역한 단어로, 부처님 이전에는
아트만(Ātman 自我)이 머무는 장소를



의미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몸 안의 영혼이
머무는 장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영혼이 이 몸에 깃들어 있으려면 우리의 몸 안에
영혼이 머무는 장소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영혼이 눈을 통해서 세상도 보고,
귀를 통해서 소리도 듣고, 입을 통해서 맛도 보고,
머릿속에서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일체一切는
십이입처十二入處"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체는 '나와 세상' 모두를 표현하는 말로,
'브라만(梵神)이 아트만(自我)으로 나뉘어서
모든 존재에 들어가 있는 그 모든 존재'라고
필자가 여러 번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일체가
십이입처十二入處라니? 황당하기 그지없어
믿어지지도 않겠지만, 12입처는
6내입처(內入處:주관)와 6외입처(外入處:객관)가
쌍으로 작동하는 가상장소로,
'안내입처眼內入處, 이耳, 비鼻, 설舌, 신身,
의내입처意內入處'와 '색외입처色外入處, 성聲,



향(香), 미(味), 촉(觸), 법외입처法外入處'가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동시에 발생합니다.
이 '처處'에 대한 생각이 과연 무엇이 다르기에
의설과 법설로 나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밖의 사과를 본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내 안의 영혼이 눈을 통해서
사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영혼이 머무는 장소는 눈 뒤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의
여섯 감각이 작동하니, 영혼이 머무는
'안의 여섯 장소(六入處)'만 있으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육내입처六內入處와
육외입처六外入處가 쌍으로 작동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해야만
했을까요? 사실 '내가 사과를 본다는 것'은
외부의(사과로 여겨지는) 대상에서 튕겨 나온
색깔 신호(色境)를 색깔 감지 시스템인
눈(眼根)이 감지하여, 색 신호를 생체신호로

변화해서(變易) 신경망을 통해 뇌에 전달하면,
신호를 전달받은 뇌는 그 신호를 해석하여
과거의 기억(名色)과 비교 판단하여(識),
가상의 눈(眼內入處)과 가상의 사과(色外入處)를
그려내고, 다시 '눈으로 사과를 보았다는
의식(眼識)'을 생산해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아(영혼)가 아야타나(Āyatana 處)에
머물면서 대상을 본다'라고 6입처를 오해하면
의설義說이고, '6입처(6내입처 + 6외입처)가
쌍으로 작동하여 주관과 객관을 만들어 냈다'라고
이해하면 법설法說입니다.
이 육입처六入處는 12연기의 핵심으로,
이것을 잘 이해하면 무아無我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언제나
자아自我와 함께한다는 상견常見'이나 '죽으면
그만이라는 단견斷見'에 떨어지게 됩니다.
불전佛典에선 이것을 무유시처無有是處와
사유시처斯有是處로 표현했습니다.
즉 이 육입처(處)가 없으면 유아有我이고,
이 육입처(處)가 이렇게 있으면 무아無我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늘 법당에서 암송하는
'처세간여허공處世間如虛空
여련화불착수如蓮華不着水
심청정초어피心淸淨超於彼
계수례무상존稽首禮無上尊'이라는
게송을 올바르게 해석하면
'12처의 세간은 허공과 같고
연꽃에 물이 묻지 않는 것과 같네
마음이 청정해져 저것(번뇌)을 뛰어넘었으니
위없이 존귀하신 분께 머리를 조아린다네.'가
됩니다. 이렇게 여기 이 게송에서도 12처의
작용을 명확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처處'라는 단어가 들어 있는
경전이 12처의 작용을 설명하고 있지만,
종래에는 처處를 그저 '외부의 장소'쯤으로
이해하거나, 아예 허사虛辭로 생각하고
해석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거나, 내가 어리석어
뛰어난 지혜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상義湘스님은 10조 9만 5048자의 화엄경을
210자의 만卍자 모양 법성게法性偈로 줄였고,
그것을 다시
'행행본처行行本處 지지발처至至發處'라는
8글자로 축약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도 가도 본래 그 자리,
도착하고 도착해도 출발한 그 자리"라고
해석합니다.
과연 그런 뜻일까요?
독자가 여기까지 잘 읽고 따라왔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생각이
좀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 글의 해석은 위에 이미 해 두었으니
굳이 사족蛇足을 달진 않으렵니다.

삼하안거三夏安居 복중伏中에도
근본 처處는 덥지도 춥지도 않네.

법주사 응향각에서

욕망은 길 욕심은 덫

무진 스님 법주사 포교국장

나무아미타불
불자는 욕망이나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것일까요?
불교를 배우고 수행을 시작한 많은 이들이
한 번쯤 품어보는 물음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접하다 보면 마치 모든 바람을
지우고 살아야만 수행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는 밥을 먹고
싶고, 따뜻한 집에서 지내고 싶으며,
더 나은 하루를 꿈꿉니다. 이처럼 살아 있는
존재로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마음까지도
모두 부정해야만 할까요?
불교에서는 욕망과 욕심을 엄연히 구분하여 봅니다.
욕망欲望은 생존과 성장을 위한 본능적인
에너지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
나은 삶을 만들고 싶다는 의욕, 정진하고 싶은
의지도 결국 욕망의 한 갈래입니다.
이 마음이 올바른 방향으로 향한다면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며 수행의 힘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 욕심慾心은 그 욕망에 집착하고,
끌어안고 놓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정도를
지나쳐 더 많이, 더 오래, 더 높이 가지려는
과한 바람은 결국 괴로움의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갈애渴愛'라고 하셨습니다.
갈증처럼 마셔도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그 끝없는 갈망이 곧 고苦의 원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얻었을 때,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이 아닐까 불안해하고
잃을까 두려워하며, 결국엔 집착하게 되는
과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욕망은 삶을 일으키는 힘이지만,
욕심은 삶을 흔드는 불안입니다.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된 마음이라 하더라도
그 중심에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길이 열립니다.
예를 들어, "매일 기도하겠다"는 마음은
정진의 의욕이자 수행의 의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서
더 큰 공덕을 쌓아야겠다",
"내가 제일 앞장서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지면,
그 마음은 어느새 집착으로 바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욕망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욕망을 억누르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통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일어나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늘 깨어서 살피는 태도가 수행자의 길입니다.
불자는 욕망을 완전히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욕심으로 흐르지 않도록 살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마음자리는 욕망도 욕심도 머물지 않는 자리입니다.
비우되 도망치지 않고, 바라보되 흔들리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늘 깨어 있어야만
갈 수 있으며, 아무리 좋은 바람이라 하더라도
'나'의 이익에 집착하는 순간 그 자리는



바로 멀어지게 됩니다. 불자는 이 마음자리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욕망과
욕심의 경계는 그리 분명하지 않습니다.
의식주를 해결하고, 가족을 부양하며,
사회 속에서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면서
모든 욕망을 끊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우리는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불자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일도
수행의 일부이며,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 또한
자비 실천의 장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되물어야 합니다.

"이 바람은 나의 안락만을 위한 것인가?"
"이 선택은 다른 생명을 해치고 있지는 않은가?"
"이 마음은 나를 괴롭게 하고 있는가,
자유롭게 하고 있는가?"

욕망을 따르되 그것이 욕심으로 바뀌지 않도록
늘 깨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불자가 세상 속에서
실천해야 할 지혜입니다. 감정과 욕망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곧 마음을 닦는 일입니다.
욕망은 난로불처럼 우리 삶을 데워줄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나 통제하지 못한 욕심은
산불처럼 모든 것을 태우고 맙니다. 욕망이 있어야
길을 떠날 수 있지만, 욕심이 생기면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불자는 늘 그 경계를 살피며 살아야 합니다.
욕망을 수행의 원력으로 삼고, 욕심은 자각으로
비워내는 지혜를 닦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불자가 지녀야 할 마음자리입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자유롭고 따뜻하게
살아가기를 발원합니다.

1500년 사찰 법주사 템플스테이

[2024년도 최우수 템플스테이 사찰 선정]

마음을 **비우다 ~** 쉼 마음을 **채우다 ~**

속리산의 품에 안긴 호서제일가람 법주사에서 사람들은 힘을 얻습니다.
법주사의 품 안에는 천 년의 세월 속에도 그 아름다움과 격조를 발하고 있는 국보와 보물이 가득합니다.
법주사는 천 년이 넘는 역사를 통한 미륵신앙이 전해져 내려왔던 곳으로서 기도와 예불 수행 등
기초적인 불교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맞이하겠습니다.



법주사 템플스테이 예약 홈페이지

예약 및 문의전화 : 043-544-5656, 010-9528-5655





2025. 7 법주사 행사일정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음 6.7 합창단법회	2 8 약사재일	3 9	4 10	5 11 광명진언기도
6 12	7 소서 13 월주대종사다례	8 14	9 15 보름	10 16 미륵재일	11 17	12 18 지장재일 지장회법회
13 19	14 20 다도반법회	15 21	16 22	17 23 제헌절	18 24 관음재일	19 25 다라니독송기도
20 초복 26 백중입재	21 27	22 28 대서	23 29	24 30	25 윤6.1 생전예수재 입재 초하루/신중기도입재 보현회 법회	26 2 백중초재
27 3 신중기도 회향	28 4 생전예수재 초재 다도반법회	29 5	30 6 중복	31 7		

■ **초 하 루 차량운행** : 청주지역 – 체육관 앞 오전 8시 / 대전지역 – 터미널건너편 선샤인호텔 앞 오전 8시 10분
■ **지장재일 차량운행** : 청주지역 – 체육관 앞 오전 8시

미륵재일기도 – 7월 일정 : 7월 10일 목요일 오전10시

미래세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중생을 다 건지시고 용화정토를 이루실 미륵부처님께
매월 음력 16일 올리는 기도입니다.

광명진언기도 – 7월 일정 : 7월 5일 토요일 오후1시

깊은 죄업과 어둠에 있을지라도 부처님의 한량없는 자비와 광명의 힘으로 밝은 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진언으로 매월 첫째주 토요일 대웅보전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지장재일기도 – 7월 일정 : 7월 12일 토요일 오전10시

중생구제를 대원력으로 삼으신 지장보살님의 가르침과 원력을 되새기고 공양을 올리며
연이 닿은 영가님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현재의 우리 삶을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 – 7월 일정 : 7월 19일 토요일 오후1시

중생의 아픔을 자비의 눈으로 보살피시고 구원의 손길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진언으로 매월 셋째주 토요일 대웅보전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초하루 신중기도 – 7월 일정 : 7월 25일 금요일 오전10시

신중기도는 매월 초하루부터 3일간 불보살님과 호법 선신들께 예불공양을 올림으로써 한 달을 잘
열어가시기 위한 신심의 발로입니다.

생일불공 – 생일부터 3일간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더 없이 복된 날에 부처님전에 정성드리는 인연을 지으시어
앞날의 건강과 행복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 각 기도 동참보시는 2만원입니다.
- 기도는 전화 043)543-4755 , 010-6732-0133로 사전접수 부탁드립니다.
- 법회일은 법회준비와 현장접수로 인해 통화가 어렵습니다.
- 법주사 기도동참계좌 : 농협 403020-51-010482 (예금주 :법주사)

법주사 대웅보전 삼존불 가사불사

가사袈裟는 부처님의 옷이자 보살의 법의이며 스님의 법복입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 의식주인 음식, 약, 침구와 함께 부처님 당시부터 재가자가 승보에게
올리는 가장 귀중한 공양물 중에 하나입니다. 가사는 불보살님의 몸을 보호하며
수행의 표상입니다. 가사를 공양하는 일은 삼보의 한 존재인 승보를 보호하고 불교를
꽃 피워가는 일이기에 가사불사는 모든 공양의 으뜸이라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불설가사공덕경에서 “가사불사를 발원한 이는 모든 재앙이 소멸하고
백 가지 복이 구름일듯이 일어난다”며 가사불사의 공덕을 전하셨습니다.
호서제일가람 법주사에서는 불기2569년 을사년 윤년을 맞아 대웅보전 세분 부처님께
무량한 공덕을 담아 황금가사를 공양 올리고자 합니다. 종단 최고의 가사명장이시자
법주사 율주이신 무상큰스님께서 평생의 원력으로 삼으셨으며 법주사의 역사와
불자님의 생애에 길이 남을 이번 불사에 동참하시어 잊혀져가는 불교의 전통을 지켜내고
한량없는 거룩한 복덕을 지으시어 세세생생 청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삼존불 가사불사동참보시 : 한가족 100만원 (세분 부처님의 가사집에 성함을 올려드립니다)
- 승보공양 가사불사동참보시 : 한분 40만원
  ※ 법주사 스님들께 가사지어 올려드리는 불사로 스님의 가사에
  공양올리신 불자님 성함 올려드립니다.
- 동참계좌 : 농협 351-1338-2785-53(법주사)



승려복지 후원 안내



법주사에서는 재적스님들께서 병고와 노후에 대한 걱정없이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교구승려복지제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오직 수행에 전념해오신 스님들이 수행자로서 위의를 지키실 수 있도록 의료비와 수행비 등 스님들의 안정적인 여건 마련을 위해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여 본사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해드리고자 합니다.
신심있으신 불자님의 계좌정기후원 참여와 승보공양 보태진다면 승려복지제도의 시행과 정착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공양 올리는 대상 중에서 부처님과 수행하시는 분들께 올리는 공양의 공덕이 제일 크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수행하시며 대중을 위해 힘쓰신 스님들을 위해 법주사 신도님들의 동참이 필요한 때입니다. 공양하시는 공덕으로 모든 장애가 사라지고 밝은 지혜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늘 복된 일상되세요!

■ CMS후원 감사한 분들

미타사 개심사 평화사 용화사(진천) 가산사 월리사 한산사 백운암 박근식 최성락 해인심 김명숙 유복례 김천만 조성록 김이경 김정옥 이용완 윤중현 채소연 강혜숙 서현숙 조성록 이효숙 김규영 김하수 황선숙 김길환 김규영 김영숙

승려복지CMS후원계좌 : 농협 351-1323-1288-03 (예금주:대한불교조계종 법주사)

윤달 생전예수재 안내

속리산 법주사에서는 윤 6월을 맞아 살아있는 '나' 자신과 살아숨쉬는 모든 존재들의 참회와 공덕을 닦는 생전예수재를 봉행합니다.
생전예수재란 살아있는 동안 공덕을 미리 닦아 사후에 고통의 세계에 머물지 않고 극락세계 서방정토에 태어나길 기도함으로써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참회하고 업장소멸을 기원하는 기도입니다.

예수재를 하는 이유

사후 극락왕생 발원
예수재는 죽은 후 명부 시왕전에 좋은 업적을 쌓아 극락왕생을 하고자 하는 신앙적 염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미리 닦는 수행
"미리 닦는다"는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재는 현생에서 자신의 수행을 점검하고 선행을 실천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업장 소멸과 참회
생전예수재는 살아있는 동안 지은 죄업을 참회하고 소멸시키기 위한 의례이기도 합니다.

자기 성찰과 발원
예수재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성찰하며,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발원하는 기회가 됩니다.

윤달의 의미
윤달은 불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데, 예수재를 윤달에 봉행하는 것은 그 의미를 더욱 강조하고 복을 기원하는 전통과 관련이 있습니다.

생전예수재 일정

생전예수재 동참금 10만원(생전예수재 준비물 포함)

입재 : 7월 25일(음 윤6월 1일) 금요일
초재 : 7월 28일(음 윤6월 4일) 월요일
2재 : 8월 4일(음 윤6월 11일) 월요일
3재 : 8월 11일(음 윤6월 18일) 월요일
4재 : 8월 18일(음 윤6월 25일) 월요일
5재 : 8월 25일(음 7월 3일) 월요일
6재 : 9월 1일(음 7월 10일) 월요일
회향 : 9월 8일(음 7월 17일) 월요일

생전예수재는 살아있는 동안 스스로의 수행과 참회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하는 불교 신행 활동입니다. 신도님들께는 법주사에서 대중의 원력으로 진행되는 이번 윤달 생전예수재에 수희 동참하시어 스스로의 노력으로 극락왕생의 길을 여시길 바랍니다.